

문 1.

[정답] ③

[해설]

- ① 헥서-올린 정리
- ② 스톨퍼-사무엘슨 정리
- ④ 요소가격균등화 정리

문 2.

[정답] ③

[해설]

양국 균형가격 보면 A국이 10, B국이 7이다. 그럼 싼 쪽이 팔게 되니 A국이 수입, B국이 수출하게 된다. 무역 이후 균형은 양국 수요와 양국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, 이때 가격은 8이다. 그런데 가격이 8일 때 A국 수요는 460, 공급은 440이므로 20만큼 부족한 수요를 결국 수입으로 채워야 하니 무역량은 20이다.

문 3.

[정답] ①

[해설]

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다.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기본이라 ①을 고르긴 했는데...

문 4.

[정답] ①

[해설]

다국적 기업은 보통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되어 있다. 반대로 비꼬아 놓은 선택지.

문 5.

[정답] ②

[해설]

생산가능곡선 그려봐도 알 수 있다. A국이 더 넓다.

문 6.

[정답] ④

[해설]

수입국의 소비자 잉여 감소한다. 상대방이 수출 줄여서 세계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.

문 7.

[정답] ②

[해설]

수입국의 경제 성장 이런 요소와 무관하다.

문 8.

[정답] ③

[해설]

문제가 조금 이상한 듯하다. 국가가 아니고 국민으로 따져야 자본가 이익 증감을 확실히 알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A국의 경우 A국 자체 자본 이익은 알 수 없다. 이자율은 오르지만 자본이 B국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들기 때문이다. 그래서 국가가 아닌 국민 기준으로 판단하니 ②가 맞고 ③이 틀린 것으로 나오길래 그렇게 정답을 냈다.

문 9.

[정답] ①

[해설]

수출에 보조금 하면 수출업자들은 당연히 수출만 하려고 할 것이고 국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가격에 보조금 더한 가격만큼 내야 한다.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 후생은 감소한다.

문 10.

[정답] ④

[해설]

딱히 잘라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고...그냥 ④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. 보통 해외의 싼 노동력이나 풍부한 자원 이런 걸 쓰기 위해 하는 것이 직접투자이기 때문이다.

문 11.

[정답] ②

[해설]

환율 상승 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이득이다.

문 12.

[정답] ③

[해설]

경상수지+자본수지-준비자산증가+오차 및 누락=0

문 13.

[정답] ②

[해설]

무위험 이자율평가는 문자 그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앤 것. 따라서 불확실하게 예상되는 환율 변화율 이 부분이 틀리다.

문 14.

[정답] ③

[해설]

마샬-러너 조건 : 순수출은 실질환율의 증가함수이다.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늘어나므로 순수출은 감소한다.

문 15.

[정답] ③

[해설]

- ① 경상수지 개선
- ② 경상수지 개선
- ④ 경상수지 악화

[팁]

예시를 주고 이것이 국제수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유형은 경제학에서도 꽤 나오는 것 같다.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암기가 필요할 듯.

문 16.

[정답] ①

[해설]

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때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. 써도 환율 변동에 의한 순수출 변동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. 대신 금융정책은 효과가 크다. 이자율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 및 순수출 변화로 증폭되기 때문이다.

문 17.

[정답] ②

[해설]

- ① 4이다.
- ③ 감소한다.
- ④ 4이다.

문 18.

[정답] ④

[해설]

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주된 쟁점은 농업이다.

문 19.

[정답] ④

[해설]

지역적으로 경제 통합이 있는 것은 WTO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무역협정이 쉽지 않으니 우선 지역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확산해간다는 의미가 크다.

문 20.

[정답] ①

[해설]

노동시장의 통합,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자유무역협정 선에서 불가능하고 공동시장 정도는 되어야 한다.